

이 책에 쓰여진 찬사

AI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AI시대 컴퓨터 혁명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AI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까? 이 책은 100년간 컴퓨터 기술을 움직여온 ‘원천’ 아이디어와 그 맥락을 통해 미래를 위한 통찰을 제시한다. 더 어렵고 다양한 문제가 다가올 AI시대에도 이 책에 담긴 원천 아이디어와 그 맥락이 새로운 시대를 열 실마리를 마련해줄 것이다. \_ 김성훈(업스테이지 CEO)

컴퓨터과학의 가장 깊은 ‘원천’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전문 용어를 집요하게 찾아 풀어낸 책이다. 기술 격변의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원리와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오랫동안 널리 사랑받았던 초판에 이어,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정판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 더 많은 독자가 이 책과 함께 컴퓨터과학의 원천 샘물이 선사하는 지적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 \_ 류석영(KAIST 전산학부 교수)

수년간 정보 교사로서 정보 교육의 방향에 관해 고민해왔는데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 책이다. 튜링머신의 원리와 응용을 학문적, 교육적, 문학적으로 풀어내 컴퓨터과학의 근본을 깨닫게 한다. 앞으로도 정보 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교사들의 갈증과 고민을 꿰뚫어주는 ‘원천’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_ 정웅열(교사, 한국정보교사연합회 명예회장)

격변하는 AI기술 시대일수록 그 아래 흐르는 전산학의 근간을 이해한 사람만이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독심 있게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근간이 어디서, 어떻게 솟아났는가를 들려준다. 그러나 단순한 소개에 머물지 않는다. 쉬운 우리말로 쓰인 글이 이해의 조건이라는 저자의 지론대로, 모든 용어는 피부에 와닿는 우리말로 풀리고, 중간중간 들어간 시구가 개념의 결을 선명하게 짚어준다. 생각을 기계에 맡길 수 있게 된 시대일수록 끝내 내 몫으로 남는 그 ‘이해’를 어떻게 제대로 길어올릴지가 중요한데, 이 책이 더없이 분명한 답을 건넨다. \_ 이우석(한양대학교 에리카 컴퓨터학부 교수)

컴퓨터과학의 ‘원천’이 된 발상과 아이디어로 돌아가 이 분야가 어떻게 탄생하고 만들어졌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책이다. 비전공자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이나 자연스럽고 ‘따스한 모국어’로 소통하려고 하여 편안하게 다가온다. 중간중간 우리말 시를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했고, 지하철에서 늘 시집을 읽는다는 저자의 글솜씨에 감탄했다. \_ 민은경(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컴퓨터과학 근본에 관한 명쾌한 답”

컴퓨팅 혁명의 시대,  
‘원천’ 아이디어에서 AI시대 변혁의 실마리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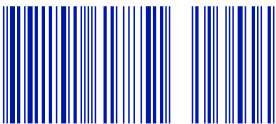


오늘날의 인공지능 혁명은 병렬 컴퓨팅을 비롯한 컴퓨터과학의 발전으로 가속되어왔다. 인공지능을 떠받치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일도, 그 무한한 잠재력을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결국 컴퓨터과학의 근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강력히 권한다. \_ 백준호(퓨리오사AI CEO)

누구나 자연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날에도, 그 기술을 떠받치는 근본 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100여 년 동안 이어진 컴퓨터과학의 오랜 지적 축적이 오늘날의 AI를 가능하게 했다. 직군의 역할과 문제를 푸는 방식은 계속 달라지겠지만,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그 변화를 가능케 한 오래된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지적 여정을 쉽고 유쾌하게 안내한다. \_ 나동희(파이썬 운영위원회 위원, CPython 코어 개발자)

대학 시절에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과 각자의 전공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컴퓨터과학이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과학인지, 알려진 원칙을 응용하는 공학인지 의견이 오갔는데, 과학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이유를 대지 못해 당혹스러웠다. 그때 이 책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은 컴퓨터과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훌륭한 책이다. 책을 읽으면, 인공지능,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등 현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기술이 자연법칙만큼이나 견고하고 보편적인 아름다운 원리 위에 세워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_ 양홍석(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

세상이 요동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에 있다.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로 떠들썩하지만, 그 속엔 변치 않는 줄기가 있다. 이 책은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때보다 기대와 염려가 치고받는 컴퓨터 세계를 헤쳐갈 이들에게 든든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_ 허기홍(KAIST 전산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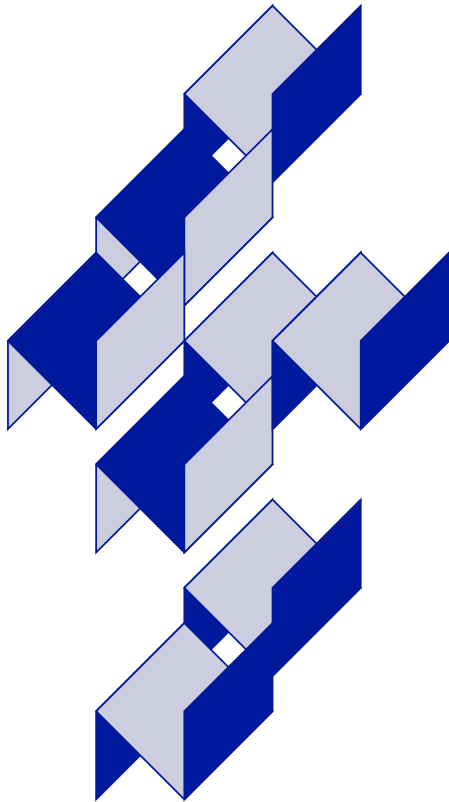
ISBN 979-11-416-1785-1 93000 | 값 20,000원



소프트웨어의 원천,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  
이광근 지음

문학동네

이광근 지음



문학동네

이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KAIST 전산학과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연구단 단장, Bell Labs-Software Principles Research Department 정규 연구원, MIT, Stanford, CMU, 파리고 등사범대학교(ENS Paris) 방문교수, Facebook Research Scientist 를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Introduction to Static Analysis』(MIT Press, 2020) 등이 있다.

홈페이지 kwangkeunyi.snu.ac.kr

컴퓨터과학이여는 세계

# 컴퓨터과학이여는 세계

소프트웨어의 원천,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